

5. 물이 드러남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창1:9-13).

지난 시간에 궁창에 대해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좋다고 반응이 와서 나도 아주 좋다. 우주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궁창이 없는 것과 같다. 숨쉴 곳이 없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들려 온 여자는 숨쉴 곳이 없었다. 율법이 지배하는 세계였으므로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하라는 말이 맞는 말이다. 그 여자는 맞는 말에 짝 조여서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비로소 숨을 쉬게 된 것이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아무 것도 볼 수 없었다. 그런데 그를 보는 사람들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본인의 죄 때문인가?’ 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그런 개념이 있듯이 인간에게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이니 당연히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것은 요즘도 마찬가지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무엇을 잘못해서 저렇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저렇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망하면 다니던 교회에 못나간다. 사람들이 모두 ‘무슨 죄로 저렇게 망했을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다 잘 될 텐데 무슨 죄를 저서 저렇게 되었는가?’라며 백안시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을 해 주신다고 가르치고 배우기 때문에 잘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하면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고 하면 축복받았다고 생각한다. 사업이 잘 된다고 하면 축복받았다고 축하한다. 그러나 잘 안된 사람을 보면 겉으로 말은 못해도 속으로는 ‘저 사람이 무엇을 잘못해서 저런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라고 생각한다. 교회들의 분위기가 그렇고 그렇게 배우기 때문이다. 실제로 잘하면 축복을 받지만 잘못

하면 벌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장로가 사업을 하다 망하면 그 교회에 못나가고 아무도 모르는 다른 교회에 나간다. 그러다가 사업이 복구되면 또 다시 그 교회로 간다. 내가 산 동네에 살아 보니 어떤 부부가 새벽 기도에도 오고 교회에 나오기도 했다. 알아 보니 장로교회에 다니던 장로였는데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본 교회를 못가는 것이었다. 그렇게 한참을 다녔는데 어느 날 사라져 버렸다. 살만하게 되었는지 본 교회로 돌아갔던 것이다. 그것을 보고 어떻게 교인들을 훈련시켰기에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의아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숨 쉴 데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다. 누구를 만나도 자기를 알아 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보는 사람마다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그렇지 않고는 저럴 리가 없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기가 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숨 쉴 구멍이 없는 것이다.

나면서 소경된 것도 억울한데 “저가 누구 죄로 저렇게 되었는가? 부모 때문인가, 아니면 본인 때문인가?”라며 판단하니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밖에 모르니까 해석한다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우리 말 속담에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말이 있다. 꿈을 나쁘게 꾀도 해몽을 잘 해주면 기분이 좋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으니까 자기가 어찌할 수 없다. 어디 가도 해석이 안된다. 그것이 바로 궁창이 없는 것이다. 숨 쉴 곳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답답하면 숨을 못쉬겠다는 말을 한다. 자기를 알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숨 쉴 곳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숨통이다. 어떤 사람도 그 앞에 가면 다 숨을 쉴 수 있다. 그는 참 사람으로,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 앞에서 죽음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게 되는 것이다. 그분을 보면 ‘저 사람도 저런데 내가 별 수 있는가.’라고 알기 때문이다.

예수가 죄를 지어서 죽었는가? 무슨 잘못을 해서 죽었는가? 나야 잘못을 해서 죽지만 그분은 죄 없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숨을 쉴 수 있는 것이다. 예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죽으셨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억울하다 하겠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잘못 보일 수도 있고 잘못했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 아주 못들을 일이 아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 가니 이 사람이거나 저 사람이거나 할 것 없이 모두 숨통이 있게 되었다.

넉넉하면 그렇게 된다. 공간이 넉넉하면 우리가 숨 쉬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나 좁은

방에 사람이 차 있으면 머리가 아프다. 전에 우리는 식당 자리에서 집회를 했고 지하 실에서도 집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했고 나도 머리가 아팠다. 그래서 산소발생기를 설치하고 공중에서 산소가 나오게 만들어 놓으니까 머리가 아프다는 소리가 덜했다. 공기가 많으면 머리가 아플 일이 없는데 공기가 부족하니까 머리가 아팠던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궁창이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궁창이 없어서 막혀 버린다. 앞으로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더욱 그러하다.

오늘은 물이 드러났다는 말씀이다. 궁창이 만들어진 다음에 물이 드러났다. 물이 위엿 물과 아랫 물로 갈라졌지만 아직 땅은 나오지 않았는데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물이 드러나게 하셨다. 그래서 물을 땅이라 하고 물을 바다라 하셨다.

배를 타 본 사람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배를 타다가 육지가 보이면 숨이 확 터질 때가 있다. 해군에 근무했던 사람은 알 텐데 15일은 바다에 살고 육지에 산다고 한다. 15일 동안은 바다에 떠 있는 것이다. 고요한 날도 있지만 풍량이 심한 날도 있으니까 배를 타는 수병들도 멀미를 한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 육지에 내리면 날아갈 듯이 좋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항구에 활기가 난다. 항구가 그런 데다.

내가 살던 데서 육지로 가려면 목포로 가야 했다. 지금은 교통이 좋아서 바로 해남으로 가지만 그때는 9시간 배를 타야 했다. 아침 9시에 배를 타면 저녁 때 목포에 도착했다. 나는 배를 타면 멀미가 나서 아무리 날씨가 좋은 날도 배에 있으면 기분이 안좋았고 바람이라도 불면 죽을 것 같았다. 그러다 육지가 보이면 얼마나 희망이 생기는지! 멀미라는 병은 묘한 병이다. 땅에 발을 디디면 없어져 버린다. 조금 전까지도 메스껍다가 육지에 발을 딛는 순간 없어지는 병이 멀미다. 배가 항구에 정착해서 육지에 발을 딛는 순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기분이 확 살아난다. 물이 그런 것이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가려면 배를 타고 가는 수밖에 없었다. 망망대해에서 40일 동안 배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보니 수평선 너머에서부터 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바다가 망망대해였다. 동양에서 오는 배들이 대부분 그곳으로 온다고 한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는 중국

사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많다. 동양 사람들이 맨 먼저 도착한 데가 거기다. 그 사람들이 40일 동안 배를 타고 있다가 육지가 보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와!”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샌프란시스코를 바라보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던 것이다. 잠시 동안 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오래 있으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곳이 바다다.

그런데 바로 그 물이 드러났다.

노아는 40주야를 방주를 타고 있었다. 홍수에서 죽지 않고 산 것이 다행이지만 40주야를 방주에 산다고 생각해 보자. 옛날에 우리가 미국에 가는 시간과 비슷한 시간이다. 게다가 물이 낮아져서 아라랏 산에 방주가 정지했을 때 물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처음에는 감람잎을 물고 왔고 두 번째 내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의 창문을 열고 나왔던 것이다. 노아가 그랬던 것이나 우리 조상들이 미국에 가서 샌프란시스코를 보고 환호했던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다.

나는 앞도 뒤도 없는 삶을 살았다. 어디로 갈지도 몰랐고 어떻게 살지도 몰랐다. 나는 성질이 하던 일만 잘되면 돈만 벌고 무난히 살 사람이지만 인생 고민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보면 이상했다. 그런데 생업이 끝나 버렸다. 돈이 말라붙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기가 괴로웠던 것이다. 이웃집이 다 장사하는 집이라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게를 정리하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 나는 팔 물건이 없어서 문을 열 수 없었다. 밤에는 괜찮아도 아침만 돌아오면 괴로웠다. 그래서 아침을 어찌해서 먹고 아무도 모를 때 예배당으로 올라가서 하루 종일 거기 있다 내려왔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때였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마치 40일 동안 배를 타다가 샌프란시스코가 눈 앞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환호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희망이 온 것이다. 거기서 나와 서울로 바로 왔다. 그곳은 산꼭대기였는데 군인들이 주둔하던 곳이라서 군인 막사가 몇 동 있었다. 그것을 불하받아서 학교를 지으려고 임시 교사로 쓰고 있었다. 허술하고 초라한 곳이었다. 그렇지만 나에게에는 그곳이 육지였다. 너무나 좋은 곳이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콘센트 건물이고 물이 없어서 아래 동네에서 길어다 먹어야 했다. 그런데도 나에게에는 너무나 좋은 곳이었다. 그 땅이 어디든지 다 샌프란시스코 같았

다. 샌프란시스코 언덕 위에는 가난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처음 온 사람들이 짓고 살던 집인 것 같다. 판자집인데 페인트를 칠해서 알록달록하게 해 놓아서 멀리서 보면 굉장히 보기 좋다. 그 동산은 나에게 너무나 편한 곳이고 안식하는 곳이고 좋은 곳이었다. 그 날은 내 인생에 물이 드러난 날이다.

물이 드러나니 어떻게 되었는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있게 되었다. 희망이 있는 그곳에 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기회가 생겼다. 나는 다른 것은 못해도 공부는 한다. 다른 능력은 없는데 공부하는 데는 능력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뿐인데 그것이 막혀 있다가 공부를 하니 매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좋았는지 모른다.

학교를 너무 오래 다닌 사람들은 학교가 지긋지긋하다고 한다. 요즘 학생들은 수능시험을 보느라 밤잠을 못자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수능 시험이 끝나면 책을 몇 박스씩 내다 버린다. 다시는 안볼 것 같아서 대학에 합격하고 나면 다 버린다. 책을 너무 많이 사서 영어 참고서가 열 권씩 된다. 참고서를 많이 보면 영어를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한 권을 봐도 닳아지도록 봐야 되지 열 권을 다 본다고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불안하니까 남이 사는 책을 안 살 수 없다.

서울에 살 때 서울대 전자공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이 몇 명 왔었는데 학부를 졸업하고 석사 과정까지만 마치고 공부를 그만두겠다는 했다. 내가 좀 더 하지 왜 그만두려고 하느냐고 했더니 공부가 지긋지긋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와서 연구소에 들어가더니 거기서 얼마 못있고 나왔다. 연구소에 가니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은 심부름꾼밖에 안되니까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다. 내가 공부를 더 하라고 할 때 박사 학위를 땀으면 연구소에 들어가서 팀장이 되었을 텐데 지긋지긋하다며 안하더니 직장에 가도 몇 달 못있고 나와 버렸다. 한 사람은 약대를 다시 가서 서울에서 약국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한전에 들어가서 잘 해서 미국에 5년간 유학을 가서 박사 학위를 받고 왔지만 그 사이에 동료들이 다 승진해 버려서 자존심이 상한다며 그만두고 나왔다. 그 뒤로 다른 직장에 다니더니 지금은 형편없이 되어 갈 데도 올 데도 없게 되었다.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할 줄 모르니까 그 모양이 된 것이다.

물이 드러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씨 맺는 채소가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지금 김장철인데 채소가 없으면 무엇을 먹고 살겠는가. 그런데 씨 맺는 채소가 나오고 열매 맺는 과일이 나온다. 이 풍성한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이 바로 씨 맺는 채소가 있고 열매 맺는 나무가 있는 곳이다. 이 세계에는 헛것

이 없다.

그러나 세상에 살아 보면 살았는지 안살았는지 모른다. 뒤로 나와 보면 우리 인생의 역사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새로운 것이 없으니까 맨날 똑같은 이야기밖에 할 이야기가 없는 것이다. 교회도 잘못 가면 그렇다. 나이 많은 분들 간증을 시켜 보면 맨 처음 교회 왔을 때 이야기를 그대로 한다. 몇 십 년 후에도 또 그 간증을 그대로 한다. 그것은 생명이 전혀 자라지 않았다는 말이다.

여러분은 다르다. 재작년과 작년이 다르고 작년과 금년이 다르고 늘 다르다. 늘 변화가 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런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작년이나 금년이 똑같다. 천 년을 살아도 하루를 사는 것과 같다. 아무 의미가 없다. 죽을 때가 되면 ‘언제 벌써 죽게 되었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 버렸나! 우물쭈물하다가 나 이럴 줄 알았다.’ 하고 인생이 끝난다.

이병철 씨같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한 사람도 마지막 자리에 오니 허망해졌다고 한다. ‘내가 무엇을 했는고?’ 생각해 보니 다 남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기 밥벌이를 하기 위해 그런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얼핏 하면 데모나 하니 나 같으면 그만뒀을 것이다. 그런데도 계속 먹여 살렸는데 지금은 욕을 한다. 그것이 인생이다. 씨 맺는 채소가 없고 열매 맺는 나무가 없다. 물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라는 바탕 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의 바탕 위에 씨 맺는 채소도 있고 열매 맺는 나무도 있지 아무 데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 것도 없는 길을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러다 목이 마르면 신기루가 보인다. 앞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 같아서 쫓아가 보면 아무 것도 없다. 그러다 죽는 것이다. 대영박물관에서 사막의 모래에 묻혀서 쭈그리고 죽은 미이락을 전시해 놓은 것을 보았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대로 말라서 미이락이 된 것이다. 그 사람은 신기루를 찾아서 헤매다 죽은 것이다.

풀이 없는 곳이 그런 곳이다. 거기 무엇이 있겠는가. 사막에 사는 것은 독사나 전갈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없는 땅, 그리스도가 없는 환경은 환경이 아니다. 풀도 없고 나무도 없으니까 언제 독사에 물릴지 모르고 언제 전갈에게 찔릴지 모른다. 세상을 살아 보면 쉬운 것이 아니다. 조금 잘못하면 낙동강 오리알 떨어지듯 떨어진다. 오늘 잘 산다고 내일까지 잘 산다는 보장이 없다. 세상은 정말 열심히 잘해야만 잘 살 수 있지

잘못하면 안되는 곳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는 사람이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메마르고 딱딱한 곳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알고 살아야 되지 세상이 천국인 줄 알고 살다가 잘못되어 “세상이 나에게 이럴 줄 몰랐다.”는 어리석은 소리를 하면 안된다. 그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세상이 그렇지.’라고 생각해야 되지 세상을 천국으로 알고 살면 안된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금방 죽을 것처럼 난리를 치지만 세상은 원래 그렇다. 원래 좋은 곳이 갑자기 나빠진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곳이다. 산소는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몸이 약해서 죽게 되면 산소가 와서 나를 썩게 만든다. 그런 것이 세상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면 친구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항상 좋게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살 수 있지 남의 것을 뜯어먹고 살기는 어렵다. 살기 어려운 곳이 세상이다. 쉬운 곳이 아니다.

교회에 와서 누가 어쩔다고 걸리고 하는데 교회도 사람 사는 데니까 걸릴 수도 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난다 싶으면 당연히 안좋은 소리를 하게 되어 있으니 그런 줄 알아야 한다. 그 사람만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 피장파장이다. 이것을 모르고 ‘교회에서 이럴 수 있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느냐.’라며 헐뜯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완전해진 것이 아니다. 다 살기 위해 교회에 온 것이므로 남을 돌보지 못할 때가 많다. 내가 사느라고 급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교회를 몇 년을 다녔다는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하고 있으면 자기만 답답하지 아무 도움이 안된다. 그런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솔깃한 것 같지만 들어보면 자기도 괴롭기 때문이다. 항상 즐거운 말을 해야 되고 좋은 말을 해야 한다.

조금 전에 한철이 형제가 집에서 부흥회를 하는 것을 보았다. 테이프를 틀어 놓고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는데 저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직접 말씀을 들으니 한철이는 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살면 되는 것 아닌가. 마누라가 돈 벌어주니까 걱정할 것 없다. 한철이는 찬양만 하면 된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쩔 줄 모르고 좋아하고 화답하는 것을 보니 너무 재미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은 비교가 안된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들어도 찬송하고 나오는 시간이 5분이 넘어서 다 잊어먹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에서 바로 들으니 바로 화답을 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돈 주고 보겠는가. 그런데 선미는 매일 볼 수 있다. 선미가 잘살 수 있는 방법은 한철이와 둘이 부흥회를 하는 것이다.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하면 그것이 천국이다. 어느 집도 이렇게 행복한 집은

없을 것이다. 한철이를 보니 진지하고 아주 생생하고 진실하다. 이것이 행복이지 행복이라는 것이 별 것 있겠는가. 한철이는 밤에 한 번씩 일어나서 혼자 부흥회를 하면서 노래부른다. 공기가 있고 땅이 있으니 못할 것이 없지 않은가. 씨 맺는 채소가 있고 열매 맺는 나무가 있으니 이제 살판이 난 것이다. 사막에 오아시스가 생긴 것이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찬양을 하겠는가.

세상에 가봤자 맨날 찌들은 소리만 해야 하고 아파트 평수 좀 불리느라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한다. 형편도 안되면서 아이들을 외국에 유학보내려니 얼마나 피곤하겠는가. 외국에 유학 보내면 아이들은 외로워서 아무것도 못한다. 아이들을 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하면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미국에 살아야 한다.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미국 문화에서 자라면 한국에 있을 때와 완전히 달라진다. 우리는 아직 부모자식의 정이 살아 있지만 거기서 부모고 자식이고 없다. 열여덟 살이 넘어서도 집을 나오지 않으면 병신 소리를 듣는다. “너 아직도 부모 밑에 있느냐.”며 병신 취급을 한다. 그런 데 아이들을 유학보내 놓고 좋다고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가 되었다. 아이들 뒷바라지 한다고 아내는 미국에 있고 남편 혼자 한국에 살고 있는데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세상에 무엇을 믿고 살겠는가. 생각해 보자. 내가 미국을 다녀 보니 그렇다. 땅도 좋고 다 좋는데 우리가 살 곳은 아니다. 차라리 같이 가서 살든지 하면 모르지만, 그래도 결국은 세대 차이가 생기고 문화 차이가 생긴다. 같이 있어도 못살게 되는 것이다.

친구 한 사람이 미국에서 30년을 살다 와서 하는 말이 한 아들이 미국 여자와 결혼했는데 일 년에 한 번 전화가 와도 고맙다고 해야 한다고 했다. 일 년에 한 번밖에 전화를 못하느냐고 했다가는 두 번 다시 전화를 안한다는 것이다. 그런 사회에 아들을 두고 와서 “아들만 하나 잃어 버리고 왔다.”고 했다. 이제는 아들이라고 할 수도 없게 된 것이다. 크리스마스 때 한 번, 부활절에 한 번, 추수감사절에 한 번, 세 번 전화하면 효자고 한 번만 전화가 와도 감사하다고 해야 한다. “바쁘는데 전화를 했느냐.”고 해야 그 다음에 또 전화를 하지 “일 년에 겨우 한 번 전화 하냐?”고 했다가는 아예 그나마 없어서 버린다. 10년 이상 미국에 다니면서 갈 때마다 주의 깊게 보았는데 그런 것이 미국 사회다.

아이들은 미국에 살면서 자기가 미국 사람인 줄 알지만 아무리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에서 공부했어도 크면 미국 사람이 아니라고 알게 된다. 직장에 가면 표가 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무 가난할 때는 그렇게라도 살아야 했고 공부할 데도 없으니까 도망치기도 하고 밀입국도 해서 미국에 갔지만 지금은 우리도 살 만하다. 이 정도 살면 살만

하지 얼마나 더 잘 살겠는가. 그러므로 있는 대로 족한 줄 알아야 한다. 물이 드러났으면 족한 줄 알아야 한다. 내가 설 땅이 있다는 것을 족한 줄 알아야 한다.

이 땅이 없으면 사막을 헤매야 되고 바다에 떠다녀야 한다. 월남이 패망했을 때 데모하고 난리치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왔지만 갈 데가 없었다. 어느 나라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조그만 배를 타고 와서 미국은 갈 수 없었고 일본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깐 한국으로 왔고 우리는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받아주었다. 그들이 보트 피플이다.

여름에 바다는 너무 좋다. 나도 바다를 굉장히 좋아한다. 바닷가에 살아서 바다가 탁트인 곳에 가면 시원해진다. 지금은 앞뒤가 막힌 산 중에 살고 있어서 답답하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 좋다. 그런데 그 바다에서 살 수는 없다. 바라볼 때는 좋지만 바다에서 살 수는 없다. 그러므로 물이 드러났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내 인생에는 앓을 자리가 없었다. 내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집이라고 조그만 것이 있었지만 장사하던 집에서 문을 닫고 있으려니 그곳이 사람이 사는 집이 되겠는가. 아침에 일어나면 괴로웠다.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데 문을 못여니 괴로웠다. 그리고 바로 5미터도 안되는 앞집을 아침마다 바라봐야 했는데 민망했다. 나 자신도 민망했고 그 사람도 나를 보면 민망해 했다. 세상을 살아 보면 그렇다.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지만 서로 민망하다. 내가 돈을 구하러 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 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내가 배를 타고 오니까 전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오는지 보려고 나왔다. 그러나 나는 빈손이었다. 내가 설 자리가 못되었던 것이다. 선창에 내려서 우리 집까지 150미터 밖에 안되는데 그 길이 얼마나 길든지! 사망에서 나를 보고 있는데 빈 가방을 들고 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그 길이 얼마나 길든지. 집에 가니 어머니는 한숨을 쉬고 계셨다. 내가 설 자리가 없었다. 물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바다에 떠 있는 사람이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한 후에도 나는 좋다고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바다에 떠 있는 생활이었다. 어디로 갈 줄 몰랐다. 8년 동안 한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다. 아무 데도 목표가 없었다. 나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데 누구 보고 어디로 가라고 하겠는가. 8년 동안 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너무나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좋은 말을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나에게 길이 없어서 길을 제시하지 못했다. 나도 남만큼 설교를 했지만 다 소용없는 것이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좋은 소리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비로소 길을 알았다. '아! 이 길로 가야 하는구나.'라고 알았다. 그래서 나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이 길 외에 다른 말을 해 본 적이 없다. 할 필요가 없었다. 왜 쓸데없는 말을 하겠는가. 여러분이 40년 동안 내가 한 말을 들어 보면 다 같은 말이다. 정도가 다른 것뿐이지 다 같은 말이다. 한 길이니까 같은 말이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 보면 계속 달라진다. 나도 계속 달라졌으니까, 길이 점점 가까워지고 종착역이 가까워지니까 말도 달라진 것이다.

서울에서 출발할 때는 부산이 멀지만 대구에 오면 부산이 가깝다. 기차를 타고 대전까지 오면 경부선과 호남선이 명백하게 갈라진다. 대전까지 올 동안은 차 안이 조용하다.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고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니까 서로 말을 안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대전에서 갈라져서 경부선을 타면 대변에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고 호남선을 타면 그랑께 저랑께 소리가 대변에 튀어 나온다. 어떻게 참고 있었는지 모른다. 대구에 내리는 사람은 김천만 와도 다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별 소리를 다 한다.

그러므로 노선이 중요하다. 어느 노선을 탔느냐가 중요하다. 나는 한 번 경부선을 탔고 이 노선이 마지막 길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일만 계속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 보면 대전 다음부터는 옥천, 영동, 김천, 구미역이 나온다. 그런데 그것이 전에 보았던 것이 다르고 지금 보는 것이 다르고 다음에 보는 것이 다르다. 신기하다.

나는 고향에서 스물일곱 살에 나왔다. 어른이 되어 나왔던 것이다. 그때 우리 동네에 제일 좋은 집이 몇 집 있었다. 몇 년 전에 40년 만에 고향에 가면서 궁금한 것은 그 집들이 과연 얼마나 좋은 집이었는지 보고 싶었다. 그런데 가 보고는 '저런 집을 왜 내가 좋다고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렸을 때도 아니고 다 커서 본 것인데도 도시에 살다 고향에 가 보니 너무나 초라했다. 내 눈이 의심스러워서 두 번씩이나 들여다 보았지만 마찬가지로였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말씀을 들어 보면 들을 때마다 달라진다. 시야가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지며 인식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늘 하는 것이다. 다 아는 체하고 안듣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사십년 전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것도 모른다.

고기는 먹어 본 놈이 먹는다는 말이 있다. 어려서 우리는 소고기를 일 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했다. 그런데 미국에 가니 소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가는 데마다 엘에이 갈비를 구워서 파티를 했다. 거기서 한 달쯤 소고기를 먹고 오니 내 생전 늘지 않던 체중이 늘었다. 그래서 소고기를 먹으면 체중이 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유는 모르지만 다른 고기는 먹어도 체중이 늘지 않는데 소고기를 먹으면 체중이 는다. 한 달쯤 소고기를 먹다 집에 오니 맨 푸른초장이고 먹을 것이 없었다. 소고기를 먹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았다. 고기는 먹어 본 놈이 먹지 안먹어 본 사람은 고기 생각이 없다.

충주 형제들은 육지에 살아서 생선을 먹어 보지 못한 사람이 많다. 그래서 생선을 보면 못먹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생선을 고기라고 생각하는 데 이 사람들은 생선은 비린내가 난다고 안먹는다. 이렇게 다르다. 먹어 본 놈이 먹고 또 먹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도 먹어 본 놈이 먹고 또 먹고 하는 것이다. 안먹어 보면 몰라서 못먹는다. 늘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물이 드러났다. 궁창뿐만 아니라 물이 드러났다. 내가 발 딛고 설 수 있는 곳이 생겼다. 이제는 내 발로 걸어다닐 수 있으니까 바다에 떠다니는 것처럼 나침반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는 얼마나 그것이 정확한 자리인지 모른다. 사람에게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정의했지만 다 헛일이고 십자가에 못박혔지만 내려올 수 없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 이 자리가 견고한 땅, 흔들리지 않는 땅이다.

배에 있으면 왜 불안한지 아는가. 배는 움직인다. 배가 파도에 움직이면 내 몸이 거기 적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멀미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육지에 내리면 땅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힘이 안든다.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으면 거기 적응하느라고 힘이 들지만 육지에 내리면 힘을 안들이고도 편안히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이 왜 요동하는가? 왜 불안한가? 그것은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다. 참 사람을 못 만나서 어디가 자기의 정체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 보면 '이것이 참 사람의 자리구나. 이것이 사람이구나.'라고 알아진다. 그러면 육지에 서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을 모르면 인생은 계속 불안하다. 배를 타고 있는 것처럼 불안하고 파도가 일면 불안하다. 바다가 잔잔하면 배가 조용히 가지만 조금만 파도가 일어도 울렁거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내 몸도 같이 울렁거린다.

여러분의 인생이 만일 배를 탄 것처럼 울렁거리면 위치를 바꿔야 한다. 좋지 않은 시골길을 가면서 차가 덜렁거리는 것처럼 불안하면, 바람부는 언덕에 서 있는 것처럼 불편하면 자기 위치를 바꿔야 한다. 예수 안에 서면 요동하지 않는다. 누가 뭐라 해도 움

직이지 않는다. ‘남이 나를 알아 주지 않는다.’는 것도 ‘남이 나를 어찌하니까 이렇다.’는 것도 다 핑계다. 땅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물이 드러났다. 예수 안에서 인생의 물이 드러났다. 내가 설 자리가 드러났다. 앉아도 되고 잠자도 되는 자리가 드러났다. 잠을 자는데 흔들리면 어떻게 잠을 자겠는가. 땅바닥이 움직이면 어떻게 잠을 자겠는가. 땅이 움직이면 굉장히 불안하다. 지진이 그런 것이다. 땅이 흔들리면 굉장히 불안하다. 그러다 땅이 쪼개지면 그 속에 빠져서 죽는다. 지진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땅이 드러났다. 물 속에 잠겨 있던 땅이 이제는 드러났다. 우리가 맨발 벗고 갈 수 있는 땅이 드러났다. 예수는 우리의 땅이다.

땅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메콩강 유역에서 수상가옥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도 거기 는 강이니까 살 수 있다. 강은 파도가 없으니까 살 수 있지만 바다에서는 파도가 있어서 못산다. 여러분은 삼국지를 읽어 보았겠지만 적벽대전은 삼국지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다. 조조는 유비와 싸우려고 적벽에 백만 대군을 모아 놓았는데 육지에 있던 병사를 배에 실어 놓으니 멀미를 했다. 제갈량은 노숙을 보내서 병사들이 멀미를 해서 전쟁을 못하니까 배를 다 판자로 연결해야 한다고 꾀어 배를 연결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병사들은 멀미를 안하게 되었지만 제갈량은 그들로부터 화살을 얻으려고 안개가 잔뜩 낀 날 저녁에 배에 벧짚을 잔뜩 싣고 가까이 가서 북을 두드렸고 갑자기 소리가 나니까 조조의 병사들은 소리나는 쪽으로 활을 쏘았다. 화살은 벧짚에 꽂혔고 배가 한쪽으로 기울면 배를 돌려서 반대쪽에 화살을 잔뜩 채웠다. 제갈량은 조조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화살을 얻었던 것이다. 다음 날 제갈량은 조조의 군대에게 화공을 하려고 동남풍이 불기를 기다렸지만 바람이 반대로 불었다. 그래서 조조는 안심했지만 제갈량의 기도 덕분인지 밤부터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동남풍이 불기 시작했고 제갈량의 화공을 받은 조조의 백만 대군은 불에 휩싸여 죽었다는 것이다. 하도 사람이 많이 죽어서 천상에서 회의를 했고 제갈량을 살려두면 인종이 멸종될 것 같아서 제갈량의 수명을 십 년을 감소시켰다는 말이 있다. 적벽대전이 그렇게 유명한 전쟁이다. 육지에 살던 사람이 배를 타니 멀미를 했던 것이다. 그래서 배를 연결시켜 놓았지만 배가 서로 묶여서 도망갈 수도 없었다. 결국은 화공을 받아 다 죽고 만 것이다. 사람은 바다에 떠서는 못산다. 아무리 물이 좋아도 육지가 있어야 되지 바다에서는 못산다. 집이 없어도 육지에 살아야 땅바닥에라도 누워 잘 수 있지 바다에서는 잘 수도 없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지다. 그리스도 외에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그 사람 위에 발을 디디면 흔들려서 못산다. ‘이 사람은 사람이 좋다. 훌륭하다. 똑똑하

다.’ 하는데 발을 디더 보면 불안해서 못견딘다. 국회의원이 부러운가? 국회의원에게 발을 디고 서 보면 얼마나 불안한지 알게 된다. 국회의원치고 점쟁이를 찾아가 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한다. 투표를 하면 뚜껑을 열어 봐야 아니까 불안한 것이다. 그 점쟁은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유명해지려면 불안하다. 일등을 계속 지키려면 밤잠을 자지 않고 공부해야 한다. 다른 사람보다 덜 자야 일등을 할 수 있지 남처럼 자고는 일등을 할 수 없다. 일등을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만 일등을 유지하려면 불안하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발을 디디면 안정된다.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온다.

나도 젊었을 때는 은사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다. 잘되는 교회는 복치고 난리치고 하는데 알고 보니 은사 때문이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나도 은사를 받으려고 좇아다녔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나에게 은사가 오지 않았다. 그러니 목회를 잘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안주시는 것을 어찌 하겠는가. 나는 진심으로 구했는데 안주셨다. 그래서 나는 망했다고 생각했고 앞에 가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리스도의 길이 열렸다. 그래서 나는 안식하게 되었다. 그 배를 타면 그 노선 안에 들어오니까 안식하게 된 것이다.

은사는 백날 받아봐야 안식이 없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한다고 내가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다운 사람을 찾으시는데 은사가 있다 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남의 병을 고쳐 준다 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해서 내가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백 살이 되어 아기를 낳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분이 다른 길을 개척해 놓으셨다. 그 길에 들어서니 모든 것이 잔잔해졌다. 다른 사람이 은사를 행하거나 말거나, 병을 고치거나 말거나 나와 관계 없게 되었다. 수십 만 명을 모으거나 말거나, 목회에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런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목회자들 세계에서 성공과 실패는 천지차이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이가 심하다. 주일날 자기 식구들을 앉혀 놓고 강대상을 두드리며 예배보는 목사가 많다. 식구끼리 예배를 보려면 앉아서 보면 될 텐데 강대상부터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월급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그에 비하면 50만 성도를

가진 목사가 우리나라에 있다. 그 차이가 얼마겠는가. 대통령과 9급 공무원에 비하겠는가. 그 차이는 엄청난 것이다. 그러니 성공을 못하면 망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돈벌이를 하러 나갈 수도 없고 군고구마 장사도 할 수 없다. 신학을 한 사람들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니 얼마나 곤란하겠는가. 그러니까 목회를 안할 사람은 신학을 하면 안된다. 신학은 절대로 할 학문이 못된다. 목회를 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것이니까 목회를 못하면 아무 데도 소용없다. 다른 공부를 해 놓으면 다른 데 쓸 수 있지만 이것은 다른 데 쓸 수 없다. 의식구조가 바뀌어서 다른 일을 못한다. '내가 이것을 하고 있으면 안되는데, 나는 이런 것을 할 사람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회는 정말 사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 부름이 있는 사람도 해매는데 부름도 없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다가 실패하면 누가 보장해 주겠는가.

신학은 학문 중에 제일 높은 학문이다. 그러니까 더 갈 곳도 없는데 목회를 안하면 할 것이 없다. 그래서 식구들끼리 강대상을 놓고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은 물이 없는 사람이다. 발 딛고 설 땅이 없는 것이다.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명함을 내놓겠는가, 무엇을 하겠는가. 자기가 무엇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친구들을 만나면,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일 년에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삼천 명씩 빠져 나온다.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지 모른다. 요즘은 해외 선교를 나간다. 저개발 국가로 보내면 돈이 얼마 안드니까 교회들이 선교사로 내보낸다.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나라에 가서 선교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라도 소화를 안시키면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 땅이 없는 것이다.

우리 인생은 설 땅이 필요하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을지, 실패한 것 같은가? 그렇지 않다. 그것이 내가 설 수 있는 땅이다. 영원히 설 수 있는 땅이다. 아무도 거기서는 밀어낼 수 없다. 그것은 내 땅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땅이니까 아무도 거기서 나가라고 할 수 없다. 견고한 땅이다.

'물'은 땅과 다른 개념이다. 물이 있는 데서 드러난 곳을 보고 물이라고 한다. 그것이 굳어진 것이 땅이다. 그러므로 물이 없는 데서 드러난 물은 없다. 한쪽에는 물이다. 물에 갇혀 있다 나온 것이 물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렁물렁하지만 갈수록 점점 견고해진다. 견고해지면 내가 서서 살 수 있다.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가장 견고한 위치가 어딘지 생각해 보자. 그리스도 안이 가장 견고한 위치다. 다른 곳은 다 흔들리지만 여기는 흔들리지 않는 곳이다. 지진이 없는 곳이

다.

여러분은 숨통이 터졌으니까 이제는 살 땅이 있어야 한다. 숨만 쉰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땅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씨 맺는 채소가 나오고 열매 맺는 과일이 나온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열매가 나온다.

견고한 자리에 서 있으면 지진이 나도 염려 없고 바람이 불어도 염려없다. 태풍에 다 날아가도 땅은 날아가지 않는다. 아메리카 대륙에 토네이도가 불면 무섭다. 우리 태풍과는 비교가 안되는 것이 토네이도다. 회오리 바람이 불면 자동차가 공중에 떠 버린다. 사람이 말려 들어가면 돌아 버린다. 그래도 땅은 꿈쩍도 안한다. 그러니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지 땅이 움직이면 못산다.

땅이 없으면 못산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땅이다. 그분이 우리의 숨통이듯이 그분은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완전한 땅이다. 그 위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위치가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땅이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땅이다. 그러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존재감이 있고 자기 실존이 거기 있기 때문에 무엇이랴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집도 있고 다 있는 사람은 나가서 고구마 장사를 해도 아무렇지 않다. 그러나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은 고구마 장사를 하라고 해도 자기가 불안해서 못한다. 견고한 땅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해도 되고 저것을 해도 된다. 자기 밭이 있으면 금년에 농사를 지어서 안됐어도 내년에는 다른 것을 하면 된다. 콩을 심어서 수확이 안났으면 내년에는 팥을 심으면 된다. 밭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바꿔서 할 수 있다. 농사를 짓는데 콩만 심으라는 법은 없다. 팥도 심을 수 있고 녹두도 심을 수 있다. 팥이나 콩은 잎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열매는 전혀 다르다. 콩 값이 비쌀 때도 있고 팥 값이 비쌀 때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바꿔서 심을 수 있다. 자기 존재감이 있으니까, 자기 땅에 서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왜 공부를 하고 왜 직장에 다니는가. 자기 땅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자기 땅을 확보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들이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를 왜 하느냐고 묻는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대답하기가 곤란하다. 할 수 없이 “너 공부를 안 하면 직장을 못구하고 직장을 못구하면 장가도 제대로 못간다.”는 소리를 해야 된다. 아이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나를 속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도 공부하는 이유를 모르는 아이들은 그렇게 교육하지 않으면 안된다. 옛날에는 사람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시대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왜 교회에 가야 됩니까?”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확실히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사람되기 위해서 교회에 가야 된다고, 거기 가야 사람으로서 안식이 되고 사람으로서 열매가 열린다고 확실하게 말해 줘야 한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면 아이들에게 해 줄 말이 없다.

아이들은 예민하게 질문한다. “교회는 왜 가야 합니까? 학교는 왜 가야 합니까?”라고. 학교에 가지 않아도 잘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학교에 가야 하느냐는 것이다. 옛날에는 가난하니까 학교에 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잘해주니까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왜 귀찮게 매일 공부만 하라고 하느냐고 한다. 그것을 설득하기 어렵다. 공부가 재미없는 아이들을 공부시키려면 대단히 어렵다. 선생님들이 공부를 못해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공부시키려면 너무 어렵다. 하기 싫은 공부를 하루 종일 얹혀 놓고 가르치려니 얼마나 괴롭겠는가. 아이들도 못알아듣는 소리를 하루 종일 들으려면 얼마나 괴롭겠는가.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해방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다. 교과서에 매이지 않고 재미있게 가르치면 될 텐데 교과과정에 맞추다 보면 못알아 듣는 것이다. 그런 아이들에게 수업시간은 지옥이다. 하루에 5-6시간을 못알아 듣는 소리를 계속 들으려면 얼마나 괴롭겠는가. 그래서 나는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한다. 그러려면 공부를 잘하는 학교보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 학교가 낫다. 연구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해 보았다. 주일학교를 하면서 유치원 아이부터 6학년 학생까지 한 자리에 모아 놓으면 말을 하기 어렵다. 집중력이 없는 유치원 아이들을 중심으로 말을 하면 고학년 아이들은 시시하다고 생각하고 5-6학년 중심으로 말을 하면 유치원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들을 다 조용하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동화를 듣고 설교를 듣게 할 수 있는지 연구했다. 내가 했으니 했지 보통 정성으로는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훈련을 해 놓으니까 큰 대회에 나가도 나보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없었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가르치다가 큰 교회에 가 보니 환경이 너무 좋았다. 조용하게 반 별로 갈라서 얹혀 놓고 가르치는 것을 누가 못하겠는가. 나는 북적거리던 데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하는 것은 쉬웠다. 그래서 그 대회에서 일등을 했던 것이다.

우리가 문경에서 집회를 할 때 텐트를 치고 했는데 장마철이어서 비가 많이 왔다. 바깥에는 비가 오고 아이들은 나갈 수 없으니까 텐트 안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옥적거

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나는 거기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다. 그때 나이 많은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고개를 저으면서 “이 목사, 이런 데서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고 하셨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장소가 따로 없이 한 장소에 아이들과 같이 있어야 했다. 아이들을 떠들지 않게 하려다 보면 한 마디도 못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말거나 나는 내가 할 말을 해야 했다. 어른도 드러눕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조용히 있겠는가. 껌 씹으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 판인데 그 사람들을 다 고쳐서 말씀을 하려면 언제 하겠는가. 이렇든 저렇든 나는 내 할 말을 해야 한다. 알아듣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 수준이 낮고 성적이 안좋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거기서 연구해서 유명한 선생님이 되겠다는 자부심을 갖자. 이진영 자매가 웃고 있는데 아무리 선생님 실력이 좋아도 아이들이 형편없으면 그 좋은 실력이 소용이 없게 된다. 어떻게 하면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이 영어에 취미를 붙일 수 있는지를 연구해 봐야 한다. 그 연구가 성공하면 선생님은 더 유명해진다.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게 해야 한다. 하기에 달린 것이다.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안될 것이 없다.

물이 드러난 것은 우리가 안전하게 설 수 있는 자리가 드러난 것이다. 예수 안에 서면 안전하다.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 불안할 필요도 없다. 항상 똑같다. 한철이는 30대에 기억이 정지되었는데 항상 그 자리에 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비디오를 촬영했다는 것이 자리잡혀 있어서 그 자리가 요동하지 않는다. 별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는다.

간증을 들어 보니 정한철 형제에게도 교회가 업그레이드 된 것이 보이는 것 같다. 말은 다 못해도 교회가 옛날과 다르게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했다. 말은 다 못하지만 자기가 보아도 신기하고 옛날과 다르다는 것이 보이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철이는 영원히 그 자리에서 변치 않을 것이다. 백 살이 돼도 비디오를 찍던 자리에서 변치 않을 것이다.